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는 개발독재기 박완서의 소설 내용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의미와 근대화 시기의 여성에 대해서 다룬다. 논문의 저자인 김은하는 한국에서 아파트가 건축적 의미보다는 상징성에 의해 많아진 것이라고 한다. 박정희 정권에서 강남개발이 본격화 되고, 부동산이 활성화 되며 한국에서 아파트를 길거리 마다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부터 아파트는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욕망을 대변하는 것이 되었다.

또한, 저자는 아파트를 욕망의 민주주의와 시기심을 유도한 주체라고 표현했다. 저자는 시기심을 “다른 이가 차지한 행운에 대한 박탈감에서 비롯된 분노의 다른 표현, 즉 사회의 부조리와 불평등에 반응하는 주체의 양식”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그녀의 표현은 시기심이 단순한 질투의 감정이 아닌 정치적 충동과 비판 의식을 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시기심이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시기심은 개인의 도덕성을 결여 시킬 수 있고, 비교 대상에 대한 선망과 좌절 그리고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박완서의 단편 소설들을 바탕으로 근대 여성들이 갖는 체험의 의미를 분석했다. 그녀는 소설 속 여성들이 과거 전통적 여성의 모습에서 벗어나, 주부, 교육엄마 등의 칭호를 얻으며 신분 이동을 했다는 것에 집중하였다.

필자는 논문의 저자가 말한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다. 우선, 저자가 근대 여성 전반에 대해 분석한 것과 당대 여성을 차별 받는 존재 및 사회적 약자로 인식한 것에 대해 동감했다. 근대화 시기 여성들의 평등한 지위와 권리는 부당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국제 인권운동에서조차 여성인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주로 개발 분야나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여성의 욕구와 주장을 반영해야 한다는 관점만이 존재했다. 물론, 1966년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이 나온 이후, 여성의 권리를 독자적 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여성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있었다. 10년 후인 1979년에 들어서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여성차별철폐협약이 제정되며 단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했다. 논문의 저자가 표현한 주부, 교육엄마도 신분의 이동의 일종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남성들에 비해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다.

둘째, 시기심에 대한 분석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저자는 시기심을 정의할 때, 시기심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저자는 논문에서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구처럼 시기심은 자기 파괴적 우울에 머물지 않고 나도 너처럼 잘 살고 싶다는 욕망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이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근대화하는 ‘기적’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의 자유를 가로막는 반공독재나 민족주의의 호소력만이 아니라 아파트 공화국이 형성한 ‘마음의 습속’ 때문

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sup>1</sup> 필자는 이러한 저자의 관점을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적용시켜 볼 수 있었다.

애덤스의 공정성이론은 상대적인 개념, 즉 논문에서 저자가 표현한 시기심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인간의 동기부여 이론 중 하나로 주로,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애덤스는 조직 내 개인과 조직의 관계에 있어서 공정성 문제가 직원들의 동기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조직의 구성원은 자신이 받은 직무에 대해 타인과 비교하고, 직무 수행 후 평가에 대해서도 타인과 비교한다. 만약 해당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으로 받은 보상이나 평가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불공정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동기가 생긴다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 조직을 위해 투입하는 것은 노력, 기술, 경험, 업적 등이며 조직이 주는 보상은 권력, 지위, 승진, 복지, 임금 등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공정성이론은 절대적인 가치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에 다니는 연구원 A는 연봉이 1억으로 한국의 평균 임금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지만, 자신의 동료 B보다 연봉이 낮다면 불공정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A는 조직으로부터 불공정함을 느끼고, 자신이 투입하는 노력을 증진시키거나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등의 노력을 하게 된다.

논문에서 저자가 표현한 여성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주변의 남성, 혹은 주변의 경제적 위치가 유사한 여성들과 자신을 비교한다. 이러한 이들의 비교는 우울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끊임없는 동기를 부여 받는다. 근대화 시기에 이러한 원리가 작용하여 여성들이 국가의 체제에 종속된 채 살아간다는 인식이 있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러한 시기심이 “사회적 약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감정이라면, 사회 자본이 매우 취약한 여성들이 행운을 거머쥔 이에 대한 시기심을 더 고통스럽게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여성이 당대에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시기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전제는 옳지 않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재된 시기심이 존재한다. 시기심의 정도는 개인적 성향의 차이이지 사회적 계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행복지수가 높은 핀란드의 사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핀란드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이지만, 이들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지위는 높지 않다. 심지어, GDP 수준을 비교해보았을 때도 우리나라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즉, 여성들이 시기심이 많다고 평가된 이유는 그들의 고유 특성 때문이지 사회적 약자라서가 아니다.

---

<sup>1</sup> 김은하. (2016). 아파트 공화국과 시기심의 민주주의: 박완서의 개발독재기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 39-66.